

한일 번역의 양태 표현(modality) 연구 - 신문 사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

이 주 리 애
(한국의국어대)

1. 서론

2000년을 전후해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한국의 3대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¹⁾. 현재 이들 신문에 대해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²⁾. 또한, 보도문은 물론 논평, 칼럼, 사설 등의 논설문도 번역이 됨으로써 사실의 전달만이 아닌 각 신문사의 논조, 때로는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주장 역시 번역되

- 1) 각 신문사의 번역팀은 상근 혹은 비상근 재택근무로 이루어지며,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전문 번역사나 한일 양국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재일교포 등이 번역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원어민에 의한 별도의 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미정 2009: 5).
- 2) 일본어의 경우 김한식(2010)에서는 기사문의 문장길이와 한자어 번역 등 가독성에 대한 연구가, 조지은(2008)에서는 신문사설 제목의 한일번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 각국에 전달되고 있다. 사실과 같은 논설문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의견을 진술(陳述)하거나 또는 그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전개하여 진리를 추궁(追窮)하는 글로 논자(論者) 자신이 무엇이 옳거나 옳지 않다고 믿는 것을 독자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기를 바라며 쓴 글이다(박진남 1992: 107). 따라서 사실에 쓰인 문장의 서술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필자의 강한 주장이 담겨 있다.

<예문1>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발(發) 후(後) 폭풍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① 기울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과 사명(社名)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저축은행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② 중요하다. 다만 현행 법령을 무시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장해 주는 식의 반(反)시장적 포퓰리즘은 ③ 금물이다. 특히 정치권이 각별히 ④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격히 ⑤ 물어야 한다. 그들이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 뒤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⑥ 사용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1. 9. 19. 사설)

<예문1>의 문장 끝의 서술 표현을 보면 ①‘기울여야 한다’, ⑤‘물어야 한다’, ⑥‘사용해야 한다’와 같이 ‘~야 한다’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는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modality) 중 파머(Palmer 2001)가 분류한 의무양태에 해당하는 표현으로3) <예문1>을 번역한 동아일보 일본어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예문2>

金融当局は今日から、営業停止による貯蓄銀行發影響を食い止めるのは全力を上げ① ‘なければならぬ。構造調整對象の貯蓄銀行と社名などが似ていることなどで、他の貯蓄銀行が被害を受けさせないことも② ‘重要だ。ただ、現在の法令を無視し、5000万ウォン超過預金も保証すべきだという反市場的ポピュリズムは③ ‘禁物だ。得に、政治

3) 파머(2001)는 양태 표현을 명제양태와 사태양태로 나누고 명제양태를 인식양태와 증거양태, 사태양태를 의무양태, 동적양태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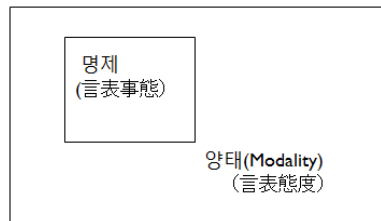
圏がとりわけ肝に銘じ④'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もある。…金融当局や捜査当局は、一部の株主や経営陣の様々な不法、違法行為に對し、刑事上・民事上の責任を厳しく問わ⑤'なければならない。彼らが横流しした財産があれば、最後まで追跡して取り戻した後、預金者らの被害を減らすのに使う⑥'べきだ。

<예문2>에서 보듯이 ①'기울여야 한다'와 ⑤'물어야 한다'의 '~야 한다' 부분은 'なければならない'로, ⑥'사용해야 한다'의 '~야 한다'는 'べきだ'로 번역되어 있다. 양태 표현 '~야 한다'에 해당되는 일본어 표현은 '~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ければいけない, ~ないといけない, ~なくてはならない, ~べきだ'등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사는 이 중에서 어떠한 표현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번역 결과물이 원문에 충실했는지 가독성이 높은지 오류는 적은지 목적에 맞게 번역이 되었는지⁴⁾ 등 잘 된 번역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다. '~야 한다'가 'べきだ'가 적절한지 'なければならない'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려면 비번역코퍼스에 대한 정량분석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설 번역이 '필자의 주장이 담긴 글'이라는 비교적 특징이 명확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의 양태 표현의 번역이 통일되거나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채 번역되고 있어 분석을 통해 번역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문과 일본신문의 사설을 수집하여 코퍼스를 구축하고 서술표현에 붙는 양태표현의 빈도를 각각 조사하여 현재 번역되고 있는 한일 번역 사설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또한 고찰 결과 일본신문의 사설에 보다 근접한 표현으로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이항(2010: 110-16)에서는 번역품질평가의 주요 경향을 주관적, 객관적 접근, 독자 반응 중심 접근, 언어학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 양태 표현과 번역 연구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장형식이 SOV(주어+목적어+서술어)구조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오는 서술표현을 문말표현(文末表現)이라고 한다. 문말표현은 시제(tense), 서법(mood), 동작상(aspect), 태(voice), 양태(modality) 등으로 실현되며 이 중 양태(modality)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Palmer 2001: 1) 한국어에서는 어미와 보조용언 등으로, 일본어에서는 조동사, 종조사, 어미변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문장 끝에 양태가 나타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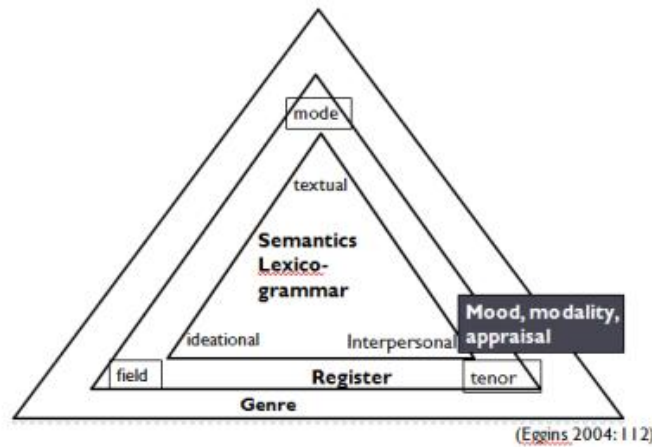


(仁田 1991, 2009)

〈그림 1〉 일본어의 양태 표현

할리데이(Halliday 2004: 61)는 의미의 메타기능에 대해 경험적(experiential), 상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논리적(logical)으로 나누었는데 양태표현(modality)은 이 중 상호적 기능에 해당된다.

5) 일본어에서는 서법(mood)과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며 마스오카와 다쿠보(益岡, 田窪 1992: 117)는 확인, 의문, 명령, 금지, 의뢰, 당위, 개언, 부정, 설명 등으로 나누고 사태와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단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형식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도 서법에 양태가 속하는 개념으로 보아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증거양태(evidential modality), 의무양태(deontic modality)로 나누고 있다(고영근, 구분관 2008).



〈그림 2〉 담화의 기능

즉, 양태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이는 사설의 논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양태표현은 언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의미적 등가의 실현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번역학에서 양태표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로 서유경(2007)에서는 노한번역에서의 양태 번역의 양상을 ST의 어휘의 문법기능에 따라 전환된 경우, 생략된 경우, 서법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크라니히(Kranich 2009)는 인식양태의 영독번역에 대해 과학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번역변이가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정량분석을 통하여 논하였다. 하티프와 메이슨(Hatim & Mason 1997: 73-76)은 통번역에서 양태표현의 원천텍스트와 번역된 텍스트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태표현의 사용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자칫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설은 논설문이라고 하는 장르적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자의 논조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이 목표어(Target Language)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번역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종철(2005)에 따르면 한국 신문의 사설에 나타나는 서술표현에는 ‘~하라, ~보자, ~야 한다, ~을 요망한다, ~기 바란다, ~해서는 안 된다, ~를 기대한다’ 등이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논설문에서 나타나는 양태 표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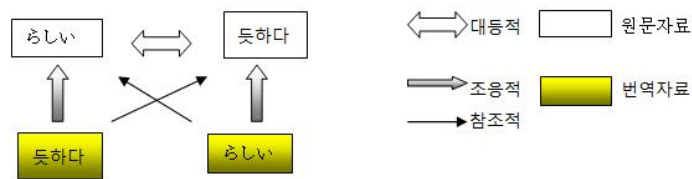
‘~야 한다’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의무 양태와 ‘~기 바란다’와 같은 소망의 양태⁶⁾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 양태에 한정해서 연구해 보는 이유는 이들 양태 표현이 한국사설과 일본사설에서 그 사용빈도에 차이를 보이고 번역할 때 대응되는 여러 표현이 존재하여 번역사가 고민을 하게 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의로 선택하여 번역하게 되면 번역된 사설을 읽는 목표어 독자에게 사설로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 경우 필자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이 아닌 목표어로 쓰인 일본 신문사설의 양태 표현을 연구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본 독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게 될 ‘사설’과 같은 논설문은 장르의 특성상 의무양태가 주로 나타날 것이고, 일본사설과 일역사설에 쓰이는 양태 표현의 빈도를 분석해 보면 각각의 사용 양상이 파악될 것이다.

3. 연구방법

신문사의 논설문은 그 길이가 1000자 내외로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조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량의 코퍼스와 함께 기계화된 분석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일 번역 연구를 위한 대량의 코퍼스⁷⁾가 아직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신문 사이트의 사설을 모아 조대봉(曹大峰 2011)에서 제시한 코퍼스 분석을 위한 코퍼스 활용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 6) 소망의 표현인 ‘~바란다, ~면 좋겠다, ~싶다’ 등은 한국어에서 양태 표현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일본어로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ほしい、たい’ 등이 있으며 이를 마스오카와 다쿠보(1992: 121)는 간접의뢰형식의 양태로 분류했다.
- 7) ST에 대한 TT의 코퍼스를 병렬코퍼스(parallel corpus)라고 하고 번역된 텍스트와 비번역 목표어로 작성된 코퍼스를 비교코퍼스(comparable corpus)라 한다(Olohan 2004, Kenny 2001). 이한섭(2009: 451)은 단일코퍼스와 병렬코퍼스로 나누어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코퍼스를 모두 병렬코퍼스라고 했다.

- (1) 대등적(對等的: 어휘 단위): 원문-원문
- (2) 조응적(照應的: 문장, 문 단위): 원문-원문을 번역한 번역문
- (3) 참조적(參照的: 어휘 단위): 원문-비번역문



(조대봉 2011: 31)

〈그림 3〉 코퍼스 분석 모델

즉, 대등적 코퍼스는 비교코퍼스(비번역코퍼스) 사이의 분석이며 조응적 코퍼스는 병렬코퍼스 사이의 분석, 참조적 코퍼스는 번역문과 비교코퍼스 사이의 분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코퍼스 종류에 대한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분석 방법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번역학에서 코퍼스를 이용한 번역 분석은 번역 평가 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조준형 외 2011: 226).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문에 대한 병렬코퍼스로는 한국신문의 일본어 번역인 일역신문이 되겠으며 일역신문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일본신문을 비교코퍼스로 하여 분석한다.

연구데이터는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각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일본의 3대 일간지와 한국의 3대 일간지 및 일본어 번역본이다. 연구는 사실만을 발췌하여 필자의 주장과 요청(소망)의 의미가 있는 양태 표현에 대해 코퍼스 빈도수를 계산하여 한국신문과 일본신문, 일역신문의 차이를 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일본신문: 朝日新聞(<http://www.asahi.com>)
 毎日新聞(<http://www.mainichi.co.jp>)
 讀賣新聞(<http://www.yomiuri.co.jp>)
 한국신문: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중앙일보(<http://www.joinsmsn.com/>)

동아일보(<http://www.donga.com/>)
 일역신문: 조선일보(http://www.chosunonline.com/?gmb_bar)
 중앙일보(<http://japanese.joins.com/?cloc=joongang|home|header>)
 동아일보(<http://japan.donga.com/>)
 (2011년 5월~9월 사설 자료)

한국어 사설 1개당 일본어 번역 사설의 문자수를 계산한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사설과 일역사설의 문자 비교

	평균 문자수
한국어 사설(ST)	946
일역 사설(TT)	1,103

이에 따르면 한국어 사설이 일본어로 번역되었을 때 약 1.7배 문자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퍼스구축을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데이터의 문자수

	일본신문	일역신문	한국신문
문자수	115,081	103,548	68,946

코퍼스 분석은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워드스미스툴스(WordSmith Tools 5.0)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지원되지만 워드스미스툴스는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인식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의 경우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일본 신문 및 일역신문의 코퍼스는 각 신문사 사이트의 글을 모아 워드파일에 옮긴 후, 유니코드 UTF-8의 텍스트파일(.txt)로 저장을 하고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다시 만들어 줘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띄어쓰기 프로그램인 wallhat⁸⁾을 사용하여 1,000자 단위로 형태소 분석을

8) <http://www.wellhat.com/tools/wakachi.html>에서 일본어 문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띄어쓰기한 문장으로 전환되는 일본의 띄어쓰기 프로그램이다.

하여 띄어쓰기로 전환하였다. 띄어쓰기 결과는 일본어 문서의 경우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문서의 띄어쓰기와는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의 크기를 문자수로 제시하도록 한다.

4. 자료 분석

4.1 의무 양태의 빈도 분석

워드스미스톨스로 분석한 한국어 사설의 코퍼스의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N	Word	Freq	%
1	#	891	3.63
2	있다	200	0.82
3	한다	131	0.53
4	수	130	0.53
5	이	128	0.52
6	것이다	87	0.35
7	더	76	0.31
8	박	67	0.27
9	대한	66	0.27
10	없다	64	0.26
11	전	61	0.25
12	들	59	0.24
13	이런	57	0.23
14	있는	53	0.22
15	것은	52	0.21

〈그림 4〉 코퍼스의 어휘별 빈도 순위

N	Concordance
1	작성과 금품수수가 공표연했다고 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2	이를 개선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차제에 감시시스템을
3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4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록에 나서야 한다. 금융 패닉을 진정시키는
5	정상적인 국회 절차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6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맡겨져야 한다. 7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7	우리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20일 국회 국방위 국방에서
8	못하는 이른바 '활밥'을 먹는다고 한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을
9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파탄 나기도 한다. 불법 다단계 피해자 가운데
10	보다 엄중하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진 편들기 행태가
11	유학생 유치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장삿속으로 유학생을
12	위한 대학의 노력이 위태러야 한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외국인
13	맞서려는 유혹부터 자제해야 한다. 무리하게 시장 혼란을 바꾸려
14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록에 나서야 한다. 금융 패닉을 진정시키는

〈그림 5〉 '한다'의 예문들

분석 결과 '한다'의 출현빈도가 높고 해당 문장을 보면 주로 '~야 한다'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상민(2003: 118)에 따르면 '~야 한다'는 일본어로 'べきだ'와 'なければならない'의 두 가지 형태로 번역되고 있다. 이들 의미는 윤상실(2000: 8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3〉 'べきだ'와 'なければならない'의 의미 비교

べきだ	なければならない
절대적 타당성. 명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	명제를 필요, 필연적인 것으로 봄. 주로 명제가 규칙이나 규정일 경우. 범조문, 명제에 대해 통제 불가능.

‘べきだ’는 필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한 결과 ‘~해야 한다’는 것이고, ‘なければならぬ’는 명제를 필요,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 주로 법조문 등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형태적으로 ‘なければならぬ’는 한국어의 ‘~지 않으면 안 된다’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한국 신문의 경우는 ‘~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한국신문의 의무 양태의 출현 빈도 비교

~야 한다	~지 않으면 안 된다
155	1

데이터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지 않으면 안 된다’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문3>

한나라당과 친박 진영이 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성향 유권자의 표를 얻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이념에 충실한 전통 지지층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2011. 9. 22)

한국 신문에서 ‘~야 한다’가 많이 쓰인 것은 지면의 제약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한국어에서는 법조문에도 ‘~야 한다’가 주로 쓰이고 있어 일본어와 같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⁹⁾. 일본어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ぬ’를 양태 표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¹⁰⁾ ‘べきだ’와 동일한 종류의 양태로 간주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신문의 ‘~야 한다’는 어떻게 주로 번역되고 있으며 일본신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 결과를 보면

9) 안주호(2005: 364)에 따르면 ‘~야 한다’만이 양태로 인정이 되고 형태적으로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접속문이나 보문형태로 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 ‘なければならぬ’에 대해 닛타(仁田 2009)와 미야자키 외(宮崎/外 2002)에서는 평가 양태로, 마스오카(益岡 1991)는 가치판단의 양태로 분류한다.

다음과 같다.

〈표 5〉 일본신문과 일역신문의 의무 양태 출현 빈도 비교

	べきだ	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신문	141	54
일역신문	63	141

일본 사설에서는 ‘べきだ’가 많이 쓰인 반면, 번역에서는 ‘なければならない’로 주로 번역되고 있어 일본 사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설이 필자의 주관을 주장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장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 신문에서 주관성이 강한 ‘べきだ’의 사용이 ‘なければならない’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번역 전략에도 적용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즉, 필연성을 강조하는 법조문 형식의 ‘なければならない’가 사설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 필자의 주장이라기보다 일종의 규정을 나열하는 글의 성격이 짙어져 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종의 의무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2 소망의 양태 표현의 빈도 분석

다음으로 ‘~싶다, ~기 바란다’ 등의 소망의 양태 표현¹¹⁾을 보도록 하겠다. 이종철(2005)에 따르면 한국어 사설에는 ‘~을 요망한다, ~기 바란다, ~를 기대한다’ 등도 나타나는데 이 역시 필자의 주장이 담긴 표현으로 실제 코퍼스 분석 결과 한국 신문에서는 이 중 ‘~기 바란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본고에서 분석한 코퍼스 중 9회에 그쳐 사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높지 않다.

한편 일본 사설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소망의 양태는 ‘~たい’와 ‘~ほしい’이다¹²⁾. 이들 표현이 일본 사설과 일역사설에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다

11) 장경희(1985), 김지은(1998)에서 ‘~싶다, 바란다’는 양태를 실현하는 용언으로 본다.

12) 닛타(仁田 2009)에서는 소망의 양태로, 미야자키 외(宮崎 外 2002)에서는 명령·의뢰의 양태로 본다.

음과 같다.

〈표 6〉 ‘たい’와 ‘ほしい’의 빈도 비교

	~たい	~ほしい
일본사설	89	39
일역사설	5	9

일본 사설에서는 일역 사설에 비해 소망의 양태표현의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일역 사설에서 찾을 수 있었던 ‘たい’ 와 ‘ほしい’의 예문은 다음과 같았다.

<예문4>

몇해 까지 경기도 지사를 하며 투자유치를 하며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구호를 쏟아내도 부끄럽지 않은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일역사설: 數年前までは、京畿道（キョンギド）知事として、投資誘致に向け走り回っていた人が、ここまで政治的扇動に近い掛け聲を相次いで發しても恥ずかしくないのか、自問してほしい。

(역번역: 수년전까지는 경기도 지사로서 투자유치를 향해 뛰어다니던 사람이 여기까지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구호를 연달아 외쳐도 부끄럽지 않은지 자문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2011. 8. 19.)

<예문5>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감성이면 수도 시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안철수 현상이 실제로 서울 유권자들을 시험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일역사설: 若者たちを魅了させる感性で首都の市政を十分全うできるのだろうか、また「安哲秀現象」が實際にソウル有権者たちを試すことになるのか、見守りたい。

(역번역: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감성으로 수도의 시정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또 ‘안철수 현상’이 실제로 서울 유권자들을 시험하게 될 지 지켜

보고자 한다.)

(동아일보 2011. 9. 3)

‘~해야 한다’가 ‘たい/ほしい’로 번역되는 예는 없었고, <예문4>와 같이 주로 ‘~기 바란다’의 경우가 소망의 양태로 번역되거나 <예문5>의 ‘궁금해진다’와 같은 양태 표현이 아닌 어휘를 소망의 양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났다. 한국 사설에서 소망의 양태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역 사설에서 나타나는 소망의 양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 사설에서 소망의 양태표현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유를 고찰해 보기 위해 일본 사설에서 쓰인 ‘たい’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다.

<예문6>

OPECは、今後3ヶ月間の市場動向をみたくえで臨時總會を開き、生産量を再検討するという。しかし、先物市場で價格が急騰す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3ヶ月を待たずに増産を決めるなど、責任ある行動をとってもらいたい。

(번역: OPEC은 향후 3개월간의 시장동향을 본 후 임시총회를 열어 생산량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증산을 결정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었으면 한다.)

(요미우리 신문, 2011. 6. 15. 사설)

<예문7>

南シナ海の領有權と海洋權益を巡り、中國と東南アジア諸國との確執が深まっている。中國側に自制を求めたい。

(번역: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측에 자제를 요구하고 싶다.)

(요미우리 신문, 2011. 6. 11. 사설)

<예문8>

活動内容については、各NPO法人の基礎情報を内閣府のウェブサイトと比較・検索できるようにし、都道府縣などのサイトと連携させる方針だ。こうした取り組みを土台に、各法人が情報発信を競い合う仕

組みを整えたい。

(번역: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각 NPO법인의 기초정보를 내각부의 웹사이트에서 비교,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도부현등의 사이트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하여 각 법인이 정보발신을 거루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싶다)

(아사히 신문, 2011. 6. 24. 사설)

<예문9>

防災対策が地域の特性によってことなるのは当然だ。大勢の帰宅困難者が出るが見込まれる大都市と、高齢化や孤立集落対策が必要な過疎地では、対策の力点の置き方も違う。ボランティア、企業、学校などの力も総動員し、地域防災力を高める知恵を絞りたい。

(번역: 방재대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은 당연하다.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대도시와 고령자와 고립된 마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과소지에서는 대책에 대한 역점을 두는 방법도 다르다. 자원봉사단체, 기업, 학교 등의 도움도 총동력하여 지역방재력을 높이는 지혜를 짜내고 싶다.)

(마이니치 신문, 2011. 6. 6. 사설)

<예문6>, <예문7>의 경우 ‘てもらいたい(~해 주었으면 한다)’, ‘求めたい(요구하고 싶다)’는 요청의 주체를 필자로 볼 수 있으나 <예문8>, <예문9>의 경우는 ‘整えたい(정비하고 싶다)’, ‘絞りたい(짜내고 싶다)’의 주체가 필자가 아니다. 제3자에게 ‘추구해 주었으면 한다’, ‘짜내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형식으로 요청의 표현을 하고 있는 사실 특유의 표현법들이다. 필자를 주체로 하지 않는 소망의 표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7> ‘たい’의 주체별 비율

필자가 주체인 ‘たい’	필자를 주체로 보기 힘든 ‘たい’
60(67.4%)	29(32.5%)
89	

이처럼 필자를 주체로 보기 힘든 ‘たい’가 전체 ‘たい’중 32.5%를 차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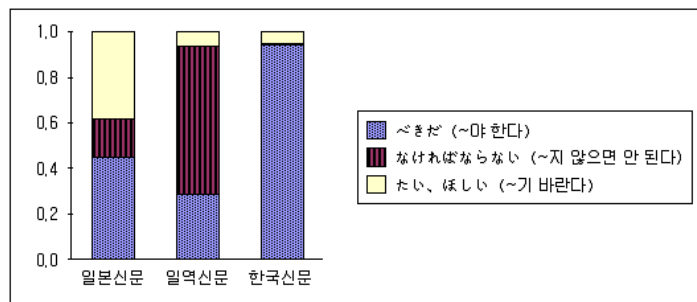
있어 결과적으로 소망의 양태표현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6>부터 <예문9>까지의 서술표현은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요청의 표현이 아닌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의무 양태로도 전환할 수 있다.

- <예문6>3ヶ月を待たずに増産を決めるなど、責任ある行動をとってもらいたい。 → ~責任ある行動をとるべきだ。
 <예문7>中國側に自制を求めたい。 → 中國側は自制すべきだ。
 <예문8>各法人が情報発信を競い合う仕組みを整えたい。 → ~仕組みを整えるべきだ。
 <예문9>ボランティア、企業、學校などの力も總動員し、地域防災力を高める知恵を絞りたい。 → ~知恵を絞るべきだ。

물론, ‘べきだ’ 외에 ‘なければならぬ, なくてはならぬ, ことだ’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사설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의무 양태뿐만 아니라 ‘たい’, ‘ほしい’와 같은 소망의 양태로도 빈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것이며 소망의 양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한국 사설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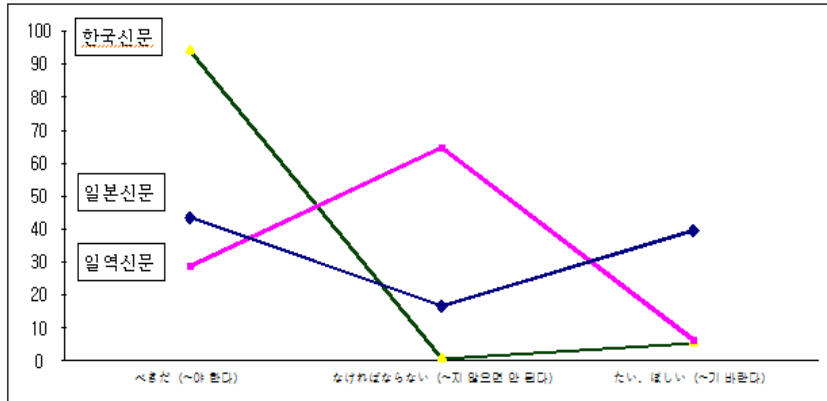
4.3 신문별 양태 표현의 사용양상 및 번역 전략

일본신문, 일역신문, 한국신문에 사용된 주장과 요청을 나타내는 의무 및 소망의 양태 표현의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신문별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

<그림6>을 보면 일본신문은 ‘べきだ (~야 한다: 43.6%)’와 ‘たい・ほしい (~기 바란다: 39.6%)’가 비슷한 빈도를 보이는 반면, 일역신문은 ‘なければならぬ (~지 않으면 안 된다: 64.6%)’, 한국신문은 ‘~야 한다(93.9%)’의 사용이 많다. 이러한 양태 표현 별 빈도를 일본사설, 일역사설, 한국사설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신문별 표현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7> 신문별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

<그림7>에서 보듯이 ‘べきだ(~야 한다)’의 사용 빈도가 한국신문-일본신문-일역신문의 순서로 높고, ‘なければなら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역신문-일본신문-한국신문의 순서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たい・ほしい(~기 바란다)’는 일본신문-일역신문-한국신문의 순서로 높아 세 종류의 신문에서 쓰인 양태 표현의 종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으로 양태표현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신문의 사설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일본 사설의 특징을 고려하는 번역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사설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なければならぬ’는 가급적 적게 사용하는 한편, 주관이 강한 ‘べきだ’와 간접적 호소방식인 ‘たい・ほしい’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번역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문말표현이 ‘なければならぬ’로 번역되어 있는 서론의 <예문1>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과 같은 번역을 고려할 수 있다.

<예문1>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발(發) 후(後) 폭풍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① 기울여야 한다.(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あげるべきだ 혹은 あげてほしい)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과 사명(社名)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저축은행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② 중요하다. 다만 현행 법령을 무시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장해 주는 식의 반(反)시장적 포퓰리즘은 ③ 금물이다. 특히 정치권이 각별히 ④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肝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肝に銘じるべきだ 혹은 肝に銘じてほしい)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격히 ⑤ 물어야 한다.(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問うべきだ) 그들이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 뒤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⑥ 사용해야 한다(使うべきだ→使いたい 혹은 使ってほしい)

(동아일보 2011. 9. 19. 사설)

이렇게 본고의 정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본신문에서 쓰인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에 가까운 표현 방식으로 적절하게 나누어 번역한다면 주장과 호소성이 짙은 사설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은 두 언어 간에 번역이 이루어질 때 문법적 구조 및 어휘, ST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ST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TT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태 표현 중 필자의 주장 및 요청을 나타내는 표현이 한국 신문, 일본 신문, 일역 신문의 사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코퍼스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표현은 한국어로는 ‘~야 한다’, ‘~지 않으면 안 된다’, ‘~기 바란다’ 등의 표현이고 일본어로는 ‘べきだ’, ‘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い’, ‘ほしい’이다. 파머(2001)의 분류를 바탕으로 ‘~야 한다’는 의무 양태 표현으로 보았고, ‘~기 바란다’ 등은 한국어에서는 양태 표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일본어의 마스오카와 다쿠보(1991) 등의 분류에 따라 소망의

양태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이 두 종류의 양태 표현은 사설의 서술어에 붙어 필자의 주장과 요청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사용 양상이 일본 신문과 한국 신문 사이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일역사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 신문에서는 주로 ‘~야 한다’라는 표현이 많았고(93.9%) 일본 신문에서는 ‘べきだ(43.6%)’와 ‘たい/ほしい(39.6%)’의 표현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일역 사설의 경우 ‘なければならぬ’가 많고(64.6%) ‘たい/ほし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6.4%). 이것은 물론 번역 사설이기 때문에 한국 사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기 바란다’의 비율이 5.4%). 또한, ‘~야 한다’의 일본어 번역이 ‘べきだ’가 아닌 ‘なければならぬ’로 번역되는 경향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겠으나 번역 전략 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신문의 사설에서 사용되는 양태 표현의 특징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은 해당 국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고 독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목표어 독자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강한 논조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완곡한 표현이 호소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 사설 등과 같은 논설문은 특히 양태 표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 목표어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번역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 ‘~べきではない(だろ)か’ 및 한국어의 ‘~야 할 것이다’ 등으로 표현을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표현의 변화에 따른 필자의 주장의 강도에 대해서도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지은 (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김한식 (2010) 「가독성의 요인별 표현 분석을 통한 번역전략 연구-한일 기사문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정 (2009) 「시사만화 한일번역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온라인상의 4칸만화와 1칸만화의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재연 (2009) 「연결어미와 양태: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119-41.
- 박진남 (1992) 「논설문 지도의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8: 107-19.
- 서유경 (2007) 「양태의 번역: 노한 번역에서의 양태 번역 유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1(1): 53-78.
- 안주호 (2005) 「“-어야 하-”류 구성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 『국어교육』 11: 363-393.
- 윤상실 (2000) 「일본어의 가치인정형 모달리티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 36(1): 76-93.
- 이기갑 (2006) 「한국어의 양태(modality) 표현-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상민 (2003) 「価値判断モダリティに関する日・韓対照研究」, 『일본언어문화』 2: 115-34.
- 이종철 (2005) 「신문사설의 요청 화행 표현의 양상 연구」, 『국어교육』 116: 222-55.
- 이한섭 (2009) 「일본어 코퍼스의 구축 및 활용 연구 -우리 학계의 공동이용을 위한 코퍼스 구축의 기본 구상-」, 『일본학연구』 27: 445-60.
- 이향 (2010) 「번역품질평가의 현황과 과제」, 『번역학연구』 11(2): 107-25.
-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11-49.
- 장강석 (2002) 「읽기교육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4: 243-69.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조준형, 이영훈, 계명훈, 고여림, 김보현, 김지은, 이상인 (2011)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평가 연구」, 『번역학연구』 12(3): 225-62.
- 조지은 (2008) 「효율적인 한일번역을 위한 신문사설 제목의 유형 분석」, 『일어일문학』 39: 75-91.
- 曹大峰 (2011) 「中國におけるコーパスを利用した日本語研究-多言語コーパスの構築と利用に向けて-」, 『第9回國際學術大會發表論文集』 韓國日本

學聰連合』, 28-29.

仁田義雄 (1991)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 (2009) 『仁田義雄日本語文法著作選 2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その周辺』,
ひつじ書房.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 田窪行則 (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宮崎和人, 安達太郎, 野田春美, 高梨信乃 (2002) 『新日本語文法選書 4 モダ
リティ』, くろしお出版.

Eggs, S. (2007)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2nd e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 A. K.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
Revised by Matthiessen, C. M.I.M.), Hodder Arnold.

Hatim, B, Mason, I.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New York:
Routledge.

Kenny, D. (2001) *Lexis and Creativity in Translation –A Corpus-based Study–*,
Manchester: St.Jerome.

Kranich, S. (2009) ‘Epistemic Modality in English Popular Scientific Texts and
Their German Translations’, *trans-kom* 2(1): 26-41.

Olohan, M.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2nd ed.)*, Cambridge UP.

Puurtinen, T. (2003) ‘Genre-specific Features of Translationes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Finnish Children’s
Literature’,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Vol. 18(4): 389-406.

Thompson, G. (200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Oxford: Oxford UP.

[Abstract]

Study on Modality Differences of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s
— A Corpus Based Analysis on News Editorials —

Lee, Ju Ri Ae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udy focuses on modality differences in expressions that exhibit the writer's argument or appeal in Korean newspapers, Japanese newspapers and newspapers translated into Japanese through corpus analysis.

The expression ‘~야 한다(ya handa)’ was widely used in Korean newspapers, while expressions such as ‘べきだ(bekida: equivalent to ~야 한다)’ and ‘たい(tai: equivalent to ~싶다)/ほしい(hosii: equivalent to ~기 바란다)’ were found in similar proportion. On the other hand, the expression ‘なければならぬ(nakerebanaranai: equivalent to ~지 않으면 안 된다)’ was most frequently used in newspapers translated into Japanese, while expressions such as ‘たい(tai: equivalent to ~싶다)/ほしい(hosii: equivalent to ~기 바란다)’ were rarely found in such newspapers. Unlike news reports that just deal with the facts, rhetorical writings such as news editorials must be translated with a strategy that considers the modality in expressions. An in-depth study on modality is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translation strategies that can deliver editorials effectively with a natural approach to the reader.

▶ Key Words: Modality, Deontic modality, Corpus analysis, News editorial translation, Interpersonal function

이주리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강사

wnfldo@hanmail.net

관심분야: 정량분석, 코퍼스 분석, 양태 표현, 번역 변이, 체계기능문법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